



## 국제바칼로레아(IB) 회장, 브랭섬홀 아시아 방문

- 국제바칼로레아 회장 시바 쿠마리 박사, 국내 공립학교의 IB 교육과정 도입 확대를 위해 한국 방문 일정 중 브랭섬홀 아시아 방문
- 시바 쿠마리 회장, 한국의 몇 안 되는 전 과정 IB학교인 브랭섬홀 아시아를 방문해 학생 및 교사진 만나





[시바 쿠마리 박사 (Dr. Siva Kumari), IB 회장]

[브랭섬홀 아시아 전경]

2019년 11월 19일 (서울, 대한민국) — 브랭섬홀 아시아 (Branksome Hall Asia)는 국제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회장인 시바 쿠마리 박사(Dr. Siva Kumari)가 오는 21일 본교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브랭섬홀 아시아 방문은 쿠마리 박사의 한국 방문 일정중 하나로, 쿠마리 박사는 일주일 간 한국에 머물며 제주뿐 아니라 서울, 대구에 있는 다양한 교육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2014년 1월, 쿠마리 박사는 IB의 일곱 번째 회장이자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2018년 50주년을 맞은 IB는 다국적 비영리교육기관으로서 3세부터 19세까지의 학생들을 위한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

최근 국내 주요 시교육청이 공교육에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쿠마리 박사의 한국 방문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쿠마리 박사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 중 유일하게 초등, 중등, 고등 전 과정을 IB 교육과정으로 지도하고 있는 브랭섬홀 아시아를 찾아 해당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브랭섬홀 아시아는 캐나다 명문 여자 사립학교 브랭섬홀의 자매학교로, 2012년 제주에 개교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여자국제학교인 브랭섬홀 아시아는 전 세계 IB 평균 점수인 29.6점에 웃도는 35점을 보유해 동아시아에서 IB





점수가 가장 높은 학교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쿠마리 박사는 "한국의 전 과정 IB 도입의 대표적 학교인 브랭섬홀 아시아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 브랭섬홀 아시아는 개교 이래 우수한 IB 교육과정을 전 과정에 걸쳐 제공하고 있다."며 "브랭섬홀 아시아는 한국 내 IB 교육을 도입하고자 하는 학교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랭섬홀 아시아 교장 신디 럭(Dr. Cinde Lock) 박사는 "쿠마리 박사가 한국 방문 일정 동안 시간을 내어 브랭섬홀 아시아를 방문해 영광이다."라며 "브랭섬홀 아시아의 모든 교사진과학생들은 본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IB 교육을 직접 받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 뜻 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 #

## 국제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에 대하여

지난 2018 년 설립 50 주년을 맞은 국제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는 1968 년부터 국제적 교육 운동을 선도한 비영리 단체로서, 3세-19세 학생들에게 4개의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과목, 문화, 국가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학생들이 배움의 유연성과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IB 는 153 개국, 5,000 여개의 학교에서 140 만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많은 정보는 IB 홈페이지 (www.ibo.org)에서 제공하고 있다.

## 브랭섬홀 아시아에 대하여

브랭섬홀 아시아는 116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캐나다의 명문 여자 사립학교 브랭섬홀 캐나다의 자매학교로, 2012 년에 제주도에 개교한 국내 유일 여자 국제학교이다. 명성 높은 본교의 프로그램과 전통을 이어받은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과 'Empowering Women'이라는 목표 아래, 브랭섬홀 아시아는 우수한 교육 과정과 과외 활동, 체계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미래의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다.

<브랭섬홀 아시아 공식 홈페이지: www.branksome.asia>

# # #